

# ‘악귀’로 표출된 텔레비전 판타지 드라마 연구

—〈아랑사또전〉, 〈오! 나의 귀신님〉을 중심으로

정명문\*

## 〈차례〉

1. 들어가며
2. 악귀와 부정적 욕망 표출
  - 2.1. 희생이 전제된 착취
  - 2.2. 결핍을 대체한 분노전가
3. 악귀 퇴치와 방임적 해결
  - 3.1. 망각과 책임 부재
  - 3.2. 자기방어와 불충분한 애도
4. 나가며 : 신자유주의적 통제와 지연된 책임

## 〈국문초록〉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귀신은 과거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주인공 귀신은 ‘기억 찾기’를 수행하면서 친근해졌다. 대신 그를 죽게 한 ‘악귀’와 빙의된 대리인이 위협적으로 부각되었다. 귀신판타지는 인간과 귀신의 관계성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준다. 본고는 악귀로 표출한 욕망과 악귀 퇴치를 통해 제시된 현대 사회의 단면을 분석해 보았다. 해당 작품은 〈아랑사또전〉, 〈오! 나의 귀신님〉이다. 이들 작품 속에서 악귀는 개인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할 때 생성되어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였다. 악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타인의 것을 착취하거나, 결핍에 의한 상처를 화풀이와 같은 분노 전가의 방식으로 회피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악귀와 대리인을 나누어 시각화했지만, 인간의 욕망을 악귀로 은유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악귀와 접촉하는 인물들 때문이다. 이들은 상대적 약자였으나 악귀를 통해 힘을 얻고 자기방어를 위해 다른 약자에게 해를 가했다. 이 방식은 공동체의 기본질서와 윤리의식에 균열을 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희생이 전제된 착취나 화풀이는 결국 범죄로 이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원 강사

어지기에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직접적인 사죄 없이 악귀만 퇴치하는 방식도 문제적이다. 병의자는 기억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악귀에게 죄를 돌렸다. 이들은 병의 직전의 상황을 연민으로 포장하여 희생자에게 충분한 애도가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묵과하도록 했다. 악귀 퇴치의 결말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통제 시스템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악귀가 등장한 판타지 드라마에서 투영된 현대사회의 단면은 사회적 약자에게 벌어지는 범죄의 책임 회피와 문제 해결 지연의 면모를 드러낸다 하겠다.

주제어: 귀신, 범죄 은폐, 병의, 신자유주의, 아랑사또전, 악귀, 오 나의 귀신님, 타자, 판타지드라마

## 1. 들어가며

로지 잭슨에 따르면 환상(판타지)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문화적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핍을 보상하려는 특징을 지닌다. 환상은 욕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욕망이 질서를 위협하는 장애 요소일 경우 추방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상적인 것은 주로 은폐된 것들을 추적한다.<sup>1)</sup> 대중서사에서 꾸준히 창작되는 귀신편타지는 이런 속성을 잘 드러낸다. 귀신은 인간이 죽어서 된 것으로 인간과 관계 안에 상대적으로 포착되는 존재이지만, 인간과 다른 속성을 가진 타자이기도 하다.<sup>2)</sup> 인간은 귀신과 마주칠 때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한 인간의 생존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신편타지는 인간의 결핍과 욕망을 드러내는 동시에 배제와 추방 대상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귀신은 <전설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을 품은 여성귀신’을 중심으로 호출되었다.<sup>3)</sup> 이들은 비정상적인 죽음

- 
- 1)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2면.
  - 2) <주자어류>에서 귀신은 하늘의 신, 사람의 귀신, 제사의 귀신으로 보았다. 본고에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귀신을 지칭한다.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구비문학연구』 25집, 구비문학학회, 2007, 8면 참조.)
  - 3) 임충 극본, 최상식 연출, <전설의 고향—나비의 한>, KBS, 1978.11.7.

을 겪어 한이 많기에 원귀(冤鬼)로 지칭된다. 이런 귀신담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인이 불명예스럽게 죽고 귀신이 된다. 둘째, 귀신이 된 여인은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나 해소는커녕 공포감을 일으키는 존재로 각인된다. 이후 용감한 신입 사또가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된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관청에 호소하여 공정하게 해결하는 공안(公安)설화와 구조가 유사하다.<sup>4)</sup> 드라마에서 그녀들은 해독 불가의 곡성과 함께 소복, 흐트러진 머리, 피가 흐르는 육체를 들이밀며 급작스레 등장했고, 그 외형은 공포를 시각화하는 구체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 속 귀신은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걱정마세요, 귀신입니다>, <아랑사또전>, <오! 나의 귀신님>, <싸우자 귀신아>, <세 가지색 판타지—우주의 별이><sup>5)</sup>처럼 주인공 귀신들은 자신이 죽은 이유를 모른 채 훼손되지 않은 몸으로 발랄하게 등장한다. 게다가 이들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인간과 연애감정도 느끼고 기억도 찾는다. 즉 기억을 잃어버린 귀신은 로맨틱 코미디 소재 중 하나가 되

임충 극본, 최상식 연출, <전설의 고향—나비의 설화>, KBS, 1980.2.26.

임충 극본, 최상식 연출, <전설의 고향—자명금>, KBS2, 1981.9.25.

이환경 극본, 안연동 연출, <전설의 고향—귀녀의 한>, KBS2, 1985.3.30.

김명호 극본, 강일수 연출, <전설의 고향—나비의 한>, KBS2, 1996.7.3.

백영숙 극본, 정성효 연출, <전설의 고향—딸의 혼령>, KBS2, 1997.7.19.

윤영수 극본, 안연동 연출, <전설의 고향—귀녀>, KBS2, 1997.9.6.

임충 극본, 이원의 연출, <전설의 고향—상사요>, KBS2, 1999.8.3.

박형진 극본, 홍석구 연출, <전설의 고향—계집중>, KBS2, 2009.8.17.

김정숙·김량 극본, 이민홍 연출, <전설의 고향—씨받이>, KBS2, 2009.8.24.

이찬영 극본, 문영진 연출, <전설의 고향—가면귀>, KBS2, 2009.9.8.

4)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92면 참조.

5) 황다는 극본, 이은진 연출, <걱정마세요, 귀신입니다>, KBS2, 1부, 2012.7.15.

정운정 극본, 김상호·정대운 연출, <아랑사또전>, MBC, 20부, 2012.8.15~10.18.

양희승·양서운 극본, 유제원 연출, <오! 나의 귀신님>, tvN, 16부, 2015.7.3~8.22.

이대일 극본, 박준화 연출, <싸우자 귀신아>, tvN, 16부, 2016.07.11~8.30.

김지현 극본·연출, <세 가지색 판타지—우주의 별이>, MBC, 3부, 2017.1.26~2.9.

었고, 부정적 이미지는 ‘악귀(惡鬼)<sup>6)</sup>’로 표현되는 경우가 늘어났다.<sup>7)</sup> 한편 범죄의 원인인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형사와 영매가 공조하는 <손 the guest>, <프리스트>, <빙의><sup>8)</sup> 등의 수사물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보아 근래 귀신편타지는 멜로나 수사 등의 장르와 결합하고 있으며,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고픈 욕망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악귀는 빙의현상으로 인해 인간과 결탁되므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드러내는데 좋은 소재였다. 이렇게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귀신편타지는 과거와 다른 공포 영역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간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원귀에 집중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귀신을 아담의 일종 즉 역사드라마 사례로 제시하거나<sup>9)</sup> 공포물의 사례로 논의<sup>10)</sup>하는 등 장르물의 일부로 파악하였다. 이후 설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사례<sup>11)</sup>나 게임 콘텐츠 기능성<sup>12)</sup>처럼 교육 도구 활용을 위한 논

- 
- 6) 악한 성향의 귀신이나 요괴를 일컬으며 원귀보다 흉측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사극인 경우 요괴, 악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현대물은 악귀로 지칭된다. 본고는 이를 악귀로 통일한다.
- 7) 비슷한 시기 <후아유>, <주군의 태양>, <귀신 보는 형사 처용>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영매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드러나는데, 살아있는 이를 중심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언급한 작품들과 그 결이 다르다.  
문지영·반기리 극본, 조현탁 연출, <후아유>, tvN, 16부, 2013.7.29~9.17.  
홍정은·홍미란 극본, 진혁 연출, <주군의 태양>, SBS, 17부, 2013.8.7~10.3.  
홍승현 극본, 강철우 연출, <귀신보는 형사 처용1>, OCN, 10부, 2014.2.9~4.6.  
홍승현·문기람·김용철 극본, 강철우 연출, <귀신 보는 형사 처용2>, OCN, 10부, 2015.8.23~10.18.
- 8) 권소라·서재원 극본, 김홍선 연출, <손 the guest>, OCN, 16부, 2018.9.12~11.01.  
문만세·이재하·김수경 극본, 김종현 연출, <프리스트>, OCN, 16부, 2018.11.24~2019.1.20.  
박희강 극본, 최도훈 연출, <빙의>, OCN, 2019.03.06.
- 9) 박상원,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아담수용과정연구」, 『인문학연구』 통권9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10) 문선영, 「전설에서 공포로, 한국적 공포물 드라마의 탄생」, 『우리문학연구』 제45집, 우리문학회, 2015.
- 11) 손영은, 「설화〈아랑의 설원〉과 드라마〈아랑사또전〉의 서사적 차이와 의미—원환과 해원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1집, 겨레어문학회, 2013.  
황인순,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드라마〈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여성문학회, 2013.

의도 진행되었다. 대부분 ‘귀신 소재’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었다. 이후 정치 종교적인 분석을 시도하거나<sup>13)</sup> 귀신의 도움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sup>14)</sup>, 시각적 정신병리 탐구<sup>15)</sup>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가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악귀 관련 작품이 증가하는 데 비해 그들이 벌이는 문제나 퇴치 이후를 주목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환상은 현실의 경계를 해체하여 현실 바깥의 존재들과 세계를 재구축 하길 제안한다. 그 결과 배제되거나 억압된 존재가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거나 혹은 변화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sup>16)</sup> 특히 ‘악은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악한 자는 자기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즉각 폭력을 행사한다.’<sup>17)</sup> 그래서 악의 정점인 ‘악귀를 판타지에서 전면화 하는 것은 현실의 경계를 해체하고 과거보다 더 부정적인 타자를 노출시키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악귀 판타지는 타자와 인간의 관계, 추방 대상에 대한 당대의 시선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귀신평타지 드라마 중 악귀와 그 대리인을 부각하고 이들이 추

김아름,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드라마 <아랑사또전>과 영화<아랑>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하은하, 「아랑설화에서 드라마<아랑사또전>에 이르는 신원 대리자의 특징과 그 의미」, 『고전문학교육』 제2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12) 위하미,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수업방법연구: 드라마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천은숙, 「TV드라마 콘텐츠의 게임형 스토리텔링적 접근: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6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7.

13) 박진규, 「대중문화 콘텐츠 속 초자연적 존재 판타지의 정치적 의미—〈O 나의 귀신님〉과 〈싸우자 귀신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10호, 콘텐츠학회, 2017.

14) 백소연, 「OCN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5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7.

15) 김민영, 「환상서사에 나타난 시각적 정신병리 구현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 6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8.

16)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91면 참조.

17) 테리 이글턴, 오수원 역, 『악』, 이매진, 130면.

방되는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에 주목한다. 분석 대상은 <아랑사또전>과 <오 나의 귀신님>이다. <아랑사또전>은 악귀의 전사와 더불어 그 힘에 기댄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가 확실히 드러나는 작품이며, <오 나의 귀신님>은 악귀와 빙의자의 유착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보여준다. 위 작품들은 여성주인공이 귀신이라는 점에서 과거 귀신편타지와 유사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점까지 드러낸다. 그러므로 현재 귀신편타지 변화 지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후 ‘퇴마를 내세우는 작품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들 작품을 통해 악귀로 은유된 현대 사회의 문제 상황과 악귀 퇴치가 의미하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귀신과 악귀가 부각되는 세계관 탐색은 차후 귀신편타지의 경향과 의미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악귀와 부정적 욕망 표출

### 2.1. 희생이 전제된 착취

판타지는 현실과 외부 경계를 해체하여 제도나 논리 바깥에 또 다른 질서와 힘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sup>18)</sup> 서구적 사고에서 선은 자아 정체성 및 동일성의 개념과 같으며, 악의 경험은 우리 밖의 이질적인 존재와 연결된다. 이 시각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타자 혹은 집단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전제이기도 하다.<sup>19)</sup> 판타지는 그런 타자를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구현한다.

<아랑사또전>은 문제를 일으킨 귀신 아랑과 이를 해결하는 사또의 만

18) 최기숙, 앞의 책, 105면.

19) 리처드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116면.

남이란 설정은 기존 설화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작품은 공간과 주요인물의 기능을 변형하기에 그 초점이 다르다. 일단 밀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져 사자(死者), 불사(不死)자, 저승사자처럼 비현실적인 존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때는 조선시대 중기 즈음에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해 세상은 흉흉해지고 자연은 파괴해진다. 혼란의 와중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고 죽은 자가 이승에 남아 활개친다. 귀신은 사람을 볼 수 있으나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없으나 유일하게 귀신을 볼 수 있게 된 도령이 있었으니 삼년 전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밀양으로 향한다. (<아랑사또전> 1회)

은오            그니까, 옥황상제가 널 사람으로 보내줬다고?  
아랑            응  
은오            네 죽음의 진실을 스스로 찾으라고(중략)  
아랑            흥!! 영감탱이들(옥황, 염라)!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이서림 그 맹물 같은 아이랑 달라. 아무것도 모른 채 비명만 지르고 있지 않을 거라구! 내 눈 깜짝할 새에 진실을 알아내서 그 중인지 뭔지 실컷 치고 놀게 만들어줄게, 영감탱이들! (<아랑사또전> 4회 / 밑줄 - 인용자)

이 작품에서 아랑은 일단 경계가 무너진 공간 속에서 타자로 등장했다. 판타지에서 타자는 보통 가치 변화 혹은 두려움을 지시하거나 기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악 혹은 사탄, 마귀, 악마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sup>20)</sup> 하지만 아랑은 이 작품에서 부정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랑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시한부로 불사의 몸을 부여받고, 살인(이서림의 죽음)과 실종(은오 어머니 홍랑)이란 문제를

20) 로지 잭슨, 앞의 책, 74면.

추적하는 주체가 된다. 아량은 문제를 제시하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가 되면서 공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랑사또전>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존재는 흥련 몸에 빙의된 무연이다. 무연은 두 번의 전생을 사는 동안 신분과 윤리라는 원칙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선녀가 되었지만 만족하지 않았고, 생에 대한 욕망으로 천상을 벗어나려다 소멸 위기에 처했던 존재였다. 결국 무연은 천상의 금기와 경계를 무시한데다가 밀양의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된다.

흥련(무연) 오랜만이야. 400년만인가? 넌 그대로구나? 난 좀 달라졌지?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보시다시피 이 모양이야. 그래도 좋아. 인간이잖아. (중략)

무연 네가 지옥에 가서 고통 받느니 소멸되는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었다. 이렇게 400년이나 인간의 몸을 갈아타면서 인간도 귀신도 아닌 존재로 살아갈 거라는 걸 생각도 못 했어.

흥련(무연) 이게 뭐 어때서? 얼마나 대단해.

무연 이래서 인간이 되겠다는 널 말린 거야. 인간은 숙명적으로 욕망을 갖게 되어있다. 욕망을 알아버리면 더 큰 욕망을 탐하게 돼. 넌 지금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탐하고 있어.

흥련(무연) 뭐 영생? 그게 뭐 나빠. 죽지 않고 살겠는데.

무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

(<아랑사또전> 13회 / 밑줄 - 인용자)

무연 정말 여기가 좋아? 황천강이나 오가면서 죽은 사람들이나 건져 올리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이곳이 정말 좋은 거냐구?

무연 넌 왜 그렇게 이곳이 싫은 것이냐?

무연            갖지 말라잖아! 갖고 싶은 욕망이 뭐가 나빠? 그런데 이곳  
 에서는 아무것도 못 갖게 하잖아?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욕망이 허용되는 이승이 나아! 이승에서 살고 싶어!

(<아랑사또전> 16회)

무연은 생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무한을 향한 욕망은 어떤 행위로도 채워지지 못하며 계속 커지기에 문제이다.<sup>21)</sup> 이는 무연이 인간계에 머무는 방식으로 확인된다. 그녀는 빙의로 인간의 몸을 차지하여 원래 영혼을 사라지게 하고 윤달 보름날 처녀를 죽여 영혼을 흡수한다. 400년 동안 무연은 백 삼십 명의 영혼을 착취했다.<sup>22)</sup> 이렇게 무연이 이승에 머무려면 무고한 인간의 몸과 영혼 즉,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 결국 이 작품은 삶에 대한 욕망과 현실 질서 교란을 등가의 악행으로 제시한다.

무연은 선녀였을 당시 <그림 1>처럼 청초했다. 하지만 인간에 빙의한 무연은 어두운 공간에서 검은 기운을 뿜으며 <그림 2>처럼 원색의 복장과 장신구를 한 채 등장한다. 인간의 몸에 깃든 무연



<그림 1> 무연의 원래 모습 (17회)

은 영혼 봉인, 결계 형성, 주술, 기억 삭제, 병 치유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그녀 주변은 <그림 3>처럼 피, 타액, 땀, 눈물, 찌은 살 등의 육체적 배설물과 엉켜있는 시체

21) 문성원, 『타자와 욕망 :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읽기와 쓰기』, 현암사, 2017, 34면.  
 22) 윤달은 태음력 상 역일(曆日)과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 넣은 달이다. 윤달은 19태양년에 7번의 윤달을 두는 19년 7윤법이란 계산법을 따른다. 19태양년은 태음력 235개월이다. 태양력 만 3년이 못 되어 윤달이 한 번씩 돌아오는 형태다. 무연이 인간계에서 살았던 400년을 3으로 나누면 133명이란 희생자의 수를 어림할 수 있다. (김명자, 「세시풍속을 통해 본 윤달의 의미」, 『고문화』 제45호,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6, 171-172면 참조.)



<그림 2> 무연에 빙의된 흥련 (7화)



<그림 3> 주술과 영혼봉인 (8화)

같은 아브젝션(abjection)이미지로 넘쳐난다. 즉 경계와 위치, 규칙이 무너지고 정체성과 체계, 질서가 교란되어 있다.<sup>23)</sup> 게다가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러 공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작품에서 무연은 강한 힘을 가졌지만 타인 착취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분노를 표출하는 괴물이다. 즉 여성의 힘과 악을 같은 축으로 놓았다. 게다가 무연이 욕망을 품게 된 계기의 옹고 그림을 판정하지 않는다. 대신 무연의 금

기 위반과 무한한 욕망 표출로 세상이 혼돈에 빠졌음만 부각한다. 무연은 인간의 힘을 빌려 영혼을 가지고, 살인을 교사하고 활용가치가 다된 인간을 유기한다. 이렇게 무연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서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데다가 법규 위반처럼 공공의 질서를 흔트리며 위협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up>24)</sup> 결국 무연으로 상징된 악귀는 탐욕이 통제와 제거의 대상임을 인지시키는데 기여한다.

한편 이 작품에는 무연을 배후삼아 권력을 행사하는 최대감과 같은 인물도 등장한다. 무연은 자신에게 머무를 영역과 영혼을 제공한 인물에게 부귀영화를 주었다. 게다가 최대감의 경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23)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괴물(억압과 위반 사이)』, 여이연, 2008, 33-35면.

24) 롤프테겐, 박규호 역, 『악의 종말』, 현문미디어, 2010, 279면.

- 돌쇠      밀양을 꼭 잡고 있는 최 대감 아닙니까요? 좌천돼서 잠깐 낙향한 모양인데 고을에 사또가 없으니 저 양반이 사또 아니 여기선 왕이랍니다요. 왕. (중략)
- 부역남    대감마님! 친네 말 좀 들어 주십시오. 증병에 노망 들린 팔순 노모가 있는데 소인이 부역엘 나가면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요. 대감마님, 부역만 빼주시든 뭐라도 하겠습니까. 나, 나랏법에 저 같은 놈은 빼준다 하더만요.
- 최 대감    나랏법? 네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야!  
(<아랑사또전> 1회)
- 이방      이전처럼 최 대감 마님 명만 잘 받들면 관아는 다시 우리 세상일세. (<아랑사또전> 4회)
- 백성1    논 한마지기로 아홉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그거마저 뺏어가 아버지는 자결하시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 백성2    우리 아들이 술을 먹고 최 대감에게 좀 나쁜 소리를 했다고 밤새 두들겨 맞고 다리병신이 되고 실성을 했습니다요.
- 백성3    저는 최 대감마님 고리 대금 빛을 갚지 못하여 열 두 살 짜리 딸아이를 팔았습니다요. (<아랑사또전> 16회)

밀양은 고을 사또가 부재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를 틈타 서울에서 관리를 지냈던 최대감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다. 최대감의 힘은 백성의 노동력과 자금을 갈취하면서 커진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고리대금이다. 그의 돈은 관리를 수족으로 부리고 백성들을 제압하는 데 기여한다. 최대감은 악귀가 보장한 자본을 통해 권력을 얻었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조성하지만 통제되지 않는다. 백성들은 최대감의 악행에 대항할수록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통, 유기, 무력의 단계를 거쳐 묵인하고 있었다.<sup>25)</sup> 사회적 약자는 위력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나도 유사한

상황을 겪을 거란 불안과 공포의 감각들이 공유되기 때문이다.<sup>26)</sup> <아랑사또전>은 조선후기가 배경이지만, 이 악귀 판타지의 전제는 자본과 약자의 불합리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는 신자본주의 성과사회인 현대와 접점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교묘하게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sup>27)</sup> 경기침체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불러일으켰고, 대량해고, 비정규직 고용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을 가져왔다. 결국 신자유주의화 이후 한국사회의 빈곤은 노동을 해도 가난한 노동 빈곤(working poor)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28)</sup> 그런데도 사회나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아랑사또전>에서 밀양은 하부체계의 붕괴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밀양은 더 얻으려는 ‘욕망들로 인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고, 약자가 몸과 영혼을 빼앗겨도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었다. 최대 감은 자본권력(악귀)과 결탁하여 약자(백성)를 지속적으로 착취했다. 밀양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다. 악귀의 힘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이들이 제재를 받지 않고 힘을 늘려가는 상황은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규칙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상대적 약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귀와 결탁해 보장받은 자본’은 거대 자본과 그 구조를 따르는 신자유주의적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판타지가 억압된 세계와 구성물을 등장시켜 현실 전복을 겨냥하는 기능<sup>29)</sup>을 가진다 할 때 <아랑사또전>은 악귀를 통해 자본 착취의 문제를 해석해 볼 수 있게 한다. 악귀가 권력자와 연결되면 더 심각해진다. 권력이 악행을 덮어 그 부정적 행위들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25) 찰스 프레드 앨퍼드, 이만우 역,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 황금가지, 2004, 113면.

26)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104면.

27) 한병철, 김태환 역,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17면.

28) 정정훈, 『사회적 배제와 대중들의 공포』, 『문화과학』 통권 78호, 문화과학사, 2014, 44면.

29) 로지 잭슨, 앞의 책, 18-19면.

환상은 현실을 도려내고, 거기에 부재하는 것, 말해질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었던 것을 드러낸다. 억압된 욕망의 대상을 제공하여 위반을 상상하게 하지만 마지막에 그러한 대상들을 처치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에 종속하게도 한다. 위반과 전복이 판타지의 본질인 것이다.<sup>30)</sup>우리는 소수를 위한 희생과 착취가 문제적임을 알고 있다. 인간답게 살려면 이 문제는 해결해야만 한다. 이 작품은 신자본주의 시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도구로 악귀를 활용하였다. 강렬한 욕망과 부귀영화로 은유된 악귀는 무고한 희생자를 착취하고 제도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희생이 전제된 탐욕, 자본과 결합한 무제한적인 권력은 부당한 착취와 두려움을 내재화시키기에 제거 대상으로 제시된다. 결국 이 작품은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서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조명하여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 2.2. 결핍을 대체한 분노전가

토도로프는 환상적인 텍스트가 되려면 독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세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이고 이야기된 사건들에 대해 자연적인 해석과 초자연적인 해석 사이에서 망설이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1)</sup> <오 나의 귀신님>에서는 인간과 귀신이 공존하는 세상이 그려진다. 귀신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지만 시각에 포착되지 않을 뿐 일상 속에 있음을 계속 주지시키는 존재이다.

DJ            여러분 아세요?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흔히 귀신이 소복입고 흑발 날리며 폐가 같은데 등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일상 속에,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대

30) 로지잭슨, 앞의 책, 242면.

31)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역, 『환상문학서설』, 일월서각, 2013, 68면.

요, 귀신이. 같이 수다 떨면서요.

순애(Na) …귀신 중에서도 가장 한이 깊다는, 처녀귀신이다. 처녀로 죽은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극락왕생도 마다하고 이리 구천을 헤매겠는가. 나를 심술의 여왕, 귀신계의 탕아라 부른다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 나는 불쌍한 영가, 미련 많은 영혼이다. 그리고 무척…심심하다.

(<오 나의 귀신님> 1회 / 밑줄 - 인용자)

<오 나의 귀신님>에서 귀신은 찜질방, 거리, 방안에서 수다를 떨 정도로 가까이에 있다. 사람들은 귀신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다. 아기, 동물 혹은 무당이 그를 보지만 일상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있으나 없는 듯 하던 귀신은 ‘빙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빙의는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인간 몸에 들러붙어 다른 행동을 하는 현상으로 하나의 육체에 다른 혼이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sup>32)</sup> 나봉선은 식당에서 설거지 및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신체와 심리 모두 나약한 성향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그녀에게 빙의된 귀신 신순애는 생활력이 강하고, 털털한 성격을 가졌다. 봉선이 순애에게 빙의되면서,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지만 주변인들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심지어 봉선이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계기도 감기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의사는 그녀를 조울증으로 진단하고, 봉선의 동료들은 다중인격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주변인들은 봉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결국 <오 나의 귀신님>은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인지부족을 망설임 사이에 둔다. 이렇게 판타지는 일상과 환상의 경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변화에 진정한 이해가 부족한 현재 사회상을 드러내는데 기여하게 된다.

32) 묘심화, 『빙의』, 찬샘, 2002, 66면.

<오 나의 귀신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은 최성재 경장이다. 그는 평소 착하고 성실한 경찰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되면 뒤에서 환자를 못 본 척 하고, 차를 막고 있는 리어카를 쳐내고, 강아지를 때고,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는 등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이 작품은 최경장에게 악귀가 붙어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며, 이를 주변에서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것으로 그린다. 빙의자는 주로 귀신에게 조종되는 동안 기억이 없다. 봉선의 경우만 보아도 순애에게 빙의된 시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경장은 악귀에 빙의되어 있으나 의식과 행동이 남아있고, 숨기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영상 속에서는 최경장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림5>처럼 검은기가 그의 주변을 맴도는 것 즉 악귀의 영향으로 표현한다. 최경장 안에 있던 악귀는 <그림6>처럼 온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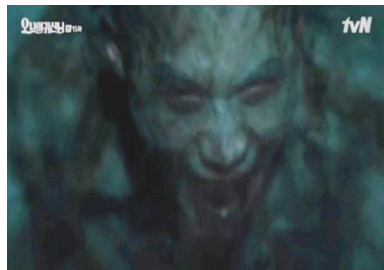
이 검은 기운으로 덮여있고, 민머리에 혈관이 확장된 빨간 눈을 가졌으며 기괴한 소리를 내는 괴물의 형상이다. 검은색은 혼돈, 죽음과 무덤, 양면성, 무의식처럼 우울감이나 죄의식을 표상할 수 있기에<sup>33)</sup> 악귀의 흔적을 시각화하는데 활용되었다. 거기에 그의 핸드폰 벨소리로 처리된 배경음



<그림 4> 선한 표정(5회)



<그림 5> 검은 기운(11회)



<그림 6> 악귀(15회)

악(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sup>34)</sup>은 경쾌하면서도 애절한 감각을 불러일으켜서 빙의된 최경장의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오 나의 귀신님>은 귀신에 빙의된 인물들에 대한 주변의 무감각과 악귀에 유착된 최경장의 범죄 은폐과정을 통해 선과 악, 현실과 환상에 대한 경계 등이 분명으로 분리되지 않는 현실을 환기시킨다.

서빙고      그 최 경장이란 자, 악귀에 썩인 걸지도 몰라.  
순애        악귀? 설마... 어떻게  
서빙고      악귀는 한번 숙주로 삼은 인간한테 쪽 붙어살거든 기생충  
              마냥. 나중엔 인간이 악귀인지, 악귀가 인간인지 분간이  
              안 된다구. (중략) 최 경장을 좀 살펴봐. 그자가 악귀가 맞  
              자면 니가 보일 테니까 각별히 조심하구.

(<오 나의 귀신님> 13회)

최경장에게 썩워진 악귀는 전사(前史)가 드러나지 않으며, 실체도 아주 짧게 나타난다. 최경장에게 빙의할 땐 검은 기운이었고, 떨어져 나왔을 때에야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로 포착된다. 데리다는 타자의 아포리아를 아웃사이더, 환대, 적대, 환적(hostipitality, 조건부 환대)으로 요약하였다.<sup>35)</sup> 최경장의 입양과정도 조건부 환대에서 적대적 관계를 거쳐 가족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단계를 거쳤다. 최경장은 입양되었지만 환대 양부모에게 친자가 생기면서(조건부 환대), 양부모의 친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오해를 받아(적대) 결국 파양됐다(아웃사이더). 그에게 붙은 악

33) 제프리 버튼 러셀, 김영범 역, 『데블』, 르네상스, 2006, 77면.

34) 최경장의 벨소리는 소련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2번으로, 러시아의 장중한 왈츠에 재즈기법이 들어가 독특한 느낌을 준다고 평가된다. 소련에 방문한 미국 재즈연주자와 교류를 통해 만들어졌다. <텔미 썸싱(1999)>, <번지점프를 하다(2001)>, <올드보이(2003)>, <아이즈 와이드 췌(2000)>과 같은 우울하고 스텔 넘치는 작품에서 OST로 활용된 뒤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35) 리처드 커니, 앞의 책, 122-130면.

귀는 숙주를 삼은 인간에게 들러붙어 인간이 결핍을 느낄 때 마다 그 힘을 발휘한다. 즉 <오 나의 귀신님>은 악귀에 병의된 최경장을 통해 견딜 수 없는 부채의 감정이 결국 누군가를 향해 퍼부어지는 위력<sup>36)</sup>을 보여준다. 최경장의 ‘결핍’은 ‘파양’이다. 파양(dissolution)이란 법적으로 승인받은 입양 이후 또 다시 양부모와 아동의 법적 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지칭한다. 파양은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파양당사자는 거절감과 낮은 자존감, 통제력 부족과 상실감, 해결되지 않은 슬픔 등 정신적, 심리적인 후유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sup>37)</sup>

성재 음주검문 있었습니다. 한 번만 쟈게.  
성재 용케 알아보시네요. 아버지.  
파향부 우리 명진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니 눈빛을 어떻게 잊겠냐. 근본도 모르는 엘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비웃듯) 경찰이 됐어?  
성재 왜요? 전 경찰 되면 안 됩니까?  
파향부 안될 건 없지. 어쨌거나. 웬만하면 우연히도 마주치지 말자. 잊고 싶은 기억이 떠올라 괴로우니까. (출발해버린다.)  
성재 ! (표정 일그러지며 꼭 쥔 주먹이 벌벌 떨리는)  
(<오 나의 귀신님> 15회)

성인이 되어 우연히 마주친 양부는 여전히 그를 혐오한다. 혐오는 자신의 오염을 막기 위해 거부하는 감정으로 특정 집단과 사람을 배척 무기로 활용할 때 위협하다.<sup>38)</sup> 최경장은 양부모의 혐오로 인해 양자로 있었던

36) 테리 이글턴, 앞의 책, 158면.

37) 이정희, 「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신대학교 석사논문, 2009, 75-76면.

김진숙, 「국내 입양 후 파양된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13(1), 한국청소년시설학회, 2015, 27면.

38) 마사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85-201면.

시간마저 부정되면서 다시 버려진다. 결국 그가 양부 살인을 모색하게 된 동기는 존재 자체를 부인당해서이다. 안정된 애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주변사람에게 거부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참지 못하고,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sup>39)</sup> 사실 분노는 ‘정서의 영역’으로 개인의 건강과 심리 유지, 적응과 발전에 기초가 되는 기술이다. 이는 내적 억제, 외적표출, 분노 통제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맥락과 학습을 통해 습득해야 한다.<sup>40)</sup> 그러나 최성재는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기술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즉 그가 부적절하게 정서를 표출하게 된 이유는 파악 제도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최경장의 분노 표출을 ‘악귀의 탓’으로 처리했다. 즉 결핍과 분노를 조절 못하는 개인만 문제삼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최경장에 짓든 악귀를 통해 다른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감정까지 제어해야 하는 단속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서빙고(E)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이 귀신 년이.. 그쪽 동생을 최경장 그놈이 치고 뺑소니치는 걸 목격하고 신고하려다가, 최 경장 그놈한테 당한거래요.

선우 어떻게... 어떻게 우리 은희한테!

서빙고(E) 그자한테 악귀가 씌었어요.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거지. 그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나봉선 그 처자부터 찾아야 돼요. 뭐든 증거를 들이밀어서 경찰부터 풀어요! (오 나의 귀신님, 15회)

39) 오세연, 「분노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6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46면.

40) 송지은 외, 「분노수준과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Vol.6 No.2, 한국심리학회, 2009, 215면.

진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나 뺀치기 당했거든. 그게 그 와이프 뺑소니 사건 때 망가진 CCTV 복구하고 오는 길 이었는데... 그때 쓰러지면서 얼핏 최 경장을 본거 같아서.

강순(순애) 현장에서요?

진구 내 생각에는... 최 경장이 와이프 뺑소니 사건 범인을 은폐하려는 것 같아. 범인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진구 심증뿐인데... 자세한건 결과가 나와 봐야 확실해져. 결정적인 증거물을 하나 확보했거든(13회)

감식원(E) 외장하드 조각에서 발견된 지문은, 한경장님이 의뢰하신 최성재 씨의 지문과 99.9% 일치합니다.

(<오 나의 귀신님> 14회)

최 경장은 양부모 살해를 포기하고 귀갓길에 올면서 운전하다 은회를 차로 들이 받고 만다. 그는 양부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한다. 그 행동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책임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전가한 것이다. 고통을 경험한 희생자는 그 아픔을 어떤 방식으로든 양갓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때 자신의 고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복, 복수, 화풀이 등이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다른 대상을 통해 해소하려는 화풀이, 특히 전혀 상관없는 대상에게 분노를 전가하는 방식은 문화, 시간, 공간을 종을 뛰어넘어 존재하며 본능이기도 하다.<sup>41)</sup> <오 나의 귀신님>은 최경장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상관없는 이에게 전가한 뒤, 그 행동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악귀’에 빙의된 모습으로 표현한다. 이 작품은 무표정한 얼굴로 인간의 가치를 지워낸 낯선 얼굴을 악귀로 구체화시킨 것이

www.kci.go.kr

41) 데이비드 바래시 외, 고빛샘 역, 『화풀이본능』, 명량한 지성, 2011, 18-46면.

다. 환상적인 것은 공포, 끔찍함,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긴장을 유지시키는데 이는 간접적이며 왜곡되고 전복된 시선의 상징이다.<sup>42)</sup> 이 작품은 최경장에게 스며든 악귀를 화풀이와 죄의식의 부재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리면서, 사이코패스적인 감정부재<sup>43)</sup>와 ‘악을 동일시한다.

순애        기억났어... 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날...  
 성재        안 봐야 될 걸 봤으니까... 니가.  
 순애        그렇다고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  
 성재        시끄러. 그러게 한 같은 거 품지 말고 그냥 올라가줬음 좋  
               았잖아. 성가시게. (검은 기운 C.G)  
 순애        소용없어. 어차피 당신 악행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기 시  
               작했어. 더 이상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 몸과 이미  
               한 몸이 된 것도 알아. 이제 당신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평생 갇혀 살게 될 거야. (<오 나의 귀신님> 15회)

최경장의 최초 문제는 사람을 차에 친 사고를 정상적으로 수습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뺑소니 이후 살인, 시체은닉, 증거조작 등 사고를 덮기 위한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 최경장이 양부모에게 느꼈던 결핍과 분노에 대한 화풀이가 지속적으로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최초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고통 경감에 소홀했던 결과 문제는 점점 더 커졌다. 결국 문제의 근원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판타지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망설임과 그 경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립에서부터 출발한다. 대립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을 보아야 하고, 희생이 성공하려면 또

42) 츠베탕 토도로프, 앞의 책, 237면.

43) 죄책감, 후회, 공감 능력, 애정,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 등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감정들이 결핍된 이를 사이코패스라 지칭한다. 이들은 감정의 진공 상태에서도 길으로는 정상적인 감정과 사랑을 지닌 평범한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하기에 두려운 존재이다. (롤프테젠, 앞의 책, 114면.)

다른 무엇을 희생시켰는지 알아야 한다. 이 작품에서 악귀는 사회적 문제에 노출된 인간의 좌절감이 정상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이들에게 감정을 떠넘기는 방식인 화풀이 혹은 사이코패스적 행동으로 형상화하였다. <오 나의 귀신님>은 가정 결핍이 감정의 결손을 치유하지 못했고, 사회적 제도가 이를 보호해주지 못한 현실은 외면했다. 그리고 화풀이로 악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악귀 판타지로 구현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일상 속 이해 부재의 상황들을 노출시키면서 관계 파탄과 결핍의 문제에 대해 역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

### 3. 악귀 퇴치와 방임적 해결

#### 3.1. 망각과 책임 부재

허구적인 세계를 통해 리얼리티를 언급하는 기법으로는 첨가, 삭제, 대조가 있다. 여기서 삭감과 삭제의 기법은 리얼리티를 단순화시켜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리얼리티를 표현하게 된다. 위 기법이 심하게 이루어질수록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미지로 세계가 재현된다.<sup>44)</sup> <아랑사또전>에서는 대리인 주왈의 ‘기억’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인간의 혼을 악귀가 차지하려면 다른 인간이 도와야 가능한 것으로 설정했다. 악귀의 욕망을 위해 전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최대감의 양아들 주왈이다. 그는 처녀를 유인해 살해하고, 영을 봉인해서 무연에게 바치고 시체를 유기한다. 즉 인간이 사회에서 사라지는데 기여한다.

어린 시절 주왈은 이름도 없는 고아 신분(45)에 골비단지<sup>45)</sup>로 떠돌아다니

44) 캐스린 흠,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143-158면.

45) 골비단지: 병으로 골골거리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면서 소죽을 훔쳐 먹는 거지였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추위와 배고픔을 정신적으로는 혐오와 멸시를 받고 있었다. 주왈은 생존 자체가 불안한 상태였고, 기본적인 인간 윤리에 대해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어린 주왈은 안정적인 환경에 속하고자 하는 생존 욕구에 지배받는 존재였다.

홍련 (...)너에게 기회를 준건 네가 다른 이들과 달라서였다. 돈을 다오, 권력을 다오, 명예를 다오, 복수를 해다오, 난 인간의 욕망이 그리 다양각색인 줄은 몰랐지. 헌데 넌 뭘 달라하지 않았어. 그저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고 했어. 그래 사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물었지. 따뜻한 집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 했어. 그리고 어머니.. 그 누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일보다 쉬운 일이 있어. 하여 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야. 그 누구에게도 허하지 않았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다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마음써주었더니 넌 지금 내게 가장 어려운 것을 달라 했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감히 내 꼴 넘봐? (<아랑사또전> 13회)

주왈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했다. 그에게 사람다움은 배불리 먹고 추운 곳을 피하며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었다. 가정 부재가 인간다움을 잃게 만든 원인이 된 것이다. 주왈이 어떤 사연으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통해 밀양이 하층 계급의 생존과 자존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공간임은 확인된다. 주왈은 무연에게 영이 맑은 처녀의 혼을 바치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바람을 성취하게 된다. 주왈에게 무연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기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작품은 제도와 인식이 미비한 공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즉각적인 욕구임을 무연과 주왈의 관계를 통해 확인시켜준다. 주왈은 무연에게 영이 맑은 처녀의 혼을 바치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바람을

성취하게 된다.



<그림 7> 기억 삭제 (16화)



<그림 8> 저승사자가 된 주왈(20화)

주왈은 무연에게 영혼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했고,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그림 8>처럼 무연에게 기억 삭제를 요청한다. 물론 인간의 기억이란 경험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며 언제나 왜곡과 망각의 가능성이 있긴 하다. 기억은 작화(confabulation), 출처 혼동(source confusion), 상상 팽창(imagination inflation)되는 구성 능력이기 때문이다.<sup>46)</sup> 망각은 사회 균형을 유지하고 제어하는 힘으로 작용될 때는 의미가 있다.<sup>47)</sup> 하지만 주왈의 망각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주왈에게 기억삭제는 관계 차단과 무책임의 과정이며, 자신의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종의 도구이다. 여기서 책임이 기억을 내면화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공동체의 조건<sup>48)</sup>임을 환기해본다면, <아랑사또전>에서 주왈의 문체는 도덕과 진리에 대한 훈육 부재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최소한

46) 진은영,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 『시대와 철학』 제21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163면.

47) Nietzsche, Fr.,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Hrsg. Giorgio Colli/Mazzino Montinari, Berlin/New York, 1999(1980). 291. 홍사현, 「망각으로부터의 기억의 발생-니체의 기억개념연구」, 『철학논집』 제42집, 서강대학교철학연구소, 2015, 342면 재인용.

48) 홍사현, 앞의 책, 345-346면.

의 윤리와 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틀(가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훈육을 받지 못했다. 그저 본인이 생존하는데 불필요한 불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안정을 얻은 것이다. 이 작품도 주왈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원인을 가정과 개인에게 돌렸기에 진정한 문제는 흐려지게 된다.

- 무연            여전히 괴롭니?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 허나 번번이 이러면 어찌자는 거니.  
 내 이리 심약한 아이인 줄 알았으면 그때 거두지 않았을 거야.
- 주왈            살려주십시오.
- 무연            또 지워주련? 지우면 돼. 그까짓 기억 따위 얼마든지 지울 수 있다. 간단하잖니. 지워주련?
- 주왈            (무릎을 꿇고 앞으로 다가가며) 예. (<아랑사또전> 16회)

사실 악귀 무연은 허상이고 정체불명의 존재이다. 실제 악행을 저지른 주왈은 기억 삭제를 통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변명 한다. 부모가 부재했던 주왈은 악귀와 결탁하면서 이를 대체할 것들을 얻었다. 주왈은 생존과 인정에 대한 기본단계를 충족시킨 뒤 아랑에게 연모의 감정까지 품었다. 게다가 그는 납치, 살인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으나 지역 유지 아들이란 신분과 권한으로 죄를 은폐하였다. 이런 행동은 공동체의 기본질서와 윤리의식에 균열을 낼 수 있다. 힘을 가진 이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까닭은 힘없는 이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 주왈            낭자. 당신의 마지막까지 그리 참담하게 버려졌는지 몰랐소. 몰랐다는 말로 용서될 진 모르겠지만 정말 몰랐소. 대체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지, 두렵

소… 나는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이오.. (중략)  
눈을 떠도 깜깜한 날들이었소. 살아도 멈춰진 날들이었소.  
가슴 졸이며 걸었던 비좁은 걸음을 이제 끝내려하오. 사  
람들 가슴에 비수를 꽂고도 멀쩡한 날, 끝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소. 남자. 혹시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런  
생이 허락된다면 그땐 남자 뒤에만 있으려 하오. 멀리서  
검은 그림자로 바라만 보며 아파만 하겠소. 감히 사랑하  
지 않겠소.

<아랑사또전>은 악귀를 ‘삭제된 것’과 관련지었고, 악귀에게 영향 받  
는 이유를 인간다움에 대한 욕구와 연결시켰다. 또한 고통에 공감하지 못  
하고 죄책감이 부재한 인물을 통해 망각과 책임 부재의 문제점을 보여준  
다. 삭제와 환상은 서로 결합되면서 매혹적인 허구의 세계를 만든다. 삭  
제가 심하게 이루어질수록 독자는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미지로 세  
계가 재현되었다고 믿게 된다. 삭제가 많은 세계는 그 진실성에 대해 격  
렬하게 부딪치게 하므로 환상적이기 때문이다.<sup>49)</sup> 밀양에 벌어진 문제들  
은 작금의 현실을 비유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진  
다. 주왈이 자살하고 저승사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결말은 이중적으로 해  
석된다. 주왈의 죽음으로 해결된 것은 미미하다. 주왈이 기억을 삭제하면  
서까지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처참한 현실도 변화가 없다. 게다가 주왈  
이 죽었던 이들에 대한 위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기억은 사회를  
바꾸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과거가 청산되려면 잘못된 것을 처벌하여 진  
실을 복원하고, 상흔들을 치유하고 애도하며 왜곡 없이 기억되게 해야 한  
다. 그러려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 기념의 제도화, 역사 왜곡의 처  
벌 등 여러 사법 장치의 도움이 필요하다.<sup>50)</sup> 결국 이 작품은 우리가 소속

49) 캐스린 흙, 앞의 책, 162-163면.

50) 이소영, 「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법학연구』 제21권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406면 참조.

된 제도가 변화해야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책임지지 않을 망각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렇게 악귀 판타지는 삭제와 복구되어야 할 것들을 통하여 해결책을 에둘러 보여준다. 데리다에 따르면 영혼을 불러내거나 악귀를 몰아내는 “콩쥐라시옹”(conjuration)은 약속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 즉 수행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행위이다.<sup>51)</sup> 주왈의 죽음으로 그의 살인은 해결되지 않는다. 악귀는 소멸되었지만, 그들이 출몰할 수 있었던 사회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또다시 부정적인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아랑사또전>에서 악귀에게 균열이 생겼던 이유는 사람들의 상황인지와 자각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감의 인신매매 현장에서 항의하고, 주왈은 죄책감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렇게 이 작품은 ‘악귀표상’으로 문제 상황을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피해는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의식만 넘쳐나는 사회, 여기서 탈피하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제대로 된 기억의 연대를 위해 교정을 요청하는 공동의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 3.2. 자기방어와 불충분한 애도

<오 나의 귀신님>은 악귀의 전사(前史)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악귀는 인간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여겨서 생성된 존재라는 조건이 붙는다. 즉 귀신 자체의 문제는 희박해지고, 그들이 인간계에 남은 것만 문제가 된다.

순애           그럼 어떡해~ 하는 데까진 해보아야지. 귀신 된 지 삼 년 넘으면 무서운 악귀로 변한다며? 악귀 되기 전에 이 한을 풀구 떠나야 될 거 아냐~

서방고         그러니까. 니 마음을 다스려야지. 어떻게든 한을 버리고

51)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115면.

그냥 성불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라구.  
순애 치 그게 맘처럼 돼야 말이지.  
서빙고 그러구 빙의하구 다니다 잘못해서 주피수 딱 맞는 몸이나 만나면 너. 갇혀서 못나오는 수가 있어.  
(<오 나의 귀신님> 1회)

일팔귀 너 악귀 그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 나는 패륜 범죄, 유괴, 토막. 그거 다 악귀 짓이야. 개들이 인간 홀린 거라구. (<오 나의 귀신님> 4회)

서빙고 정신 좀 차려. 너 같은 귀신 년들한테 젤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바로 감정이야. 사람인양 착각해서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그러다보면 욕심이 생겨. 악귀로 남아서라도 사람들 틈에 섞여 살고 싶은 욕심. 근데 악귀, 건 달러. 니들 같은 귀신 나무랭이들이 인간 몸에 빙의하고 다니는 거하곤 차원이 다르다구. 영원히 소멸되지도 않고 음습한 인간들 옆에 붙어 악을 종용하며 떠돌아다니는 거야. 더 정들기 전에 떠나 얼른. (<오 나의 귀신님> 10회)

<오 나의 귀신님> 속 악귀는 소멸되지 않기 위해 악을 종용하고,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는 근원이지만 설명되지 못하는 존재이다. 괴물이 된 이유가 없으므로 이해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특정 범행을 ‘악으로 규정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일상의 사회 조건을 초월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논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sup>52)</sup> 왜냐하면 욕망의 근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은폐된 무언가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경장은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

52) 테리 이글턴, 앞의 책, 200-201면.

그는 쓰러진 은희의 다리 위로 차를 운행해 그녀 인생을 뒤바꾸었고, 목격자 순애를 죽여 삶에 중지부를 찍었다. 거기다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려는 한 경장이 증거를 확보하자 사고로 위장하여 죽인다. 또한 봉선을 납치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주변인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정당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는 악귀의 영향력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경찰 복장의 그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악은 파괴하지만 건설하지 않고, 허물지만 재건하지 않는다. 악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사실 스스로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악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sup>53)</sup> 하지만 최성재는 경찰이기에 문제이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신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은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숨기는데 이용했다. 그러므로 최경장은 사회를 지켜야 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이 오히려 사회에 악행을 행한다는 상상의 발현이다. 경찰이 범죄자, 사이코패스라는 판타지는 공공의 기관만으로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준다.



<그림 9> 자살시도(15회)



<그림 10> 기억상실(16회)

53) 제프리 버튼 러셀, 김영범 역, 『데블』, 르네상스, 2006, 21면.

한편 <오 나의 귀신님>은 악귀가 빠져나간 이후의 삶을 통해 애도 부재의 현실을 드러낸다. 최경장은 악귀에게 벗어나자마자 <그림9>처럼 자살시도를 한다. 그는 악귀에 빙의된 동안 은혜를 불구로 만들었고, 순애와 한경장을 죽였으며, 봉선을 납치했다. 그로 인해 은혜는 발레리나의 꿈을 접었고 순애 아버지는 알콜성 간경화로 생사를 오가게 되었다. 이렇게 최경장의 범죄는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삶을 바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사죄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았다. 그래서 최경장의 자살시도는 온전한 반성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수행이라 보기 어렵다.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단순 도피에 가깝다. 적어도 순애나 한경장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 즉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남은 자들이 상실에 따르는 고통으로 병리적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sup>54)</sup>이 없었다. 최성재는 악귀가 빠져나간 후 죽지 않았고, 기억 상실로 인해 죄책감 없이 안락한 병원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는 어떠한 애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에 문제적이다. 오히려 <그림10>처럼 은혜에게 연민과 애정어린 지지를 받는다. 작품은 빙의를 일종의 면죄부로 활용한다. 결국 악귀는 완전 소멸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끝난다. 제 3의 존재인 악귀가 저지른 행동이기에 그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해결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해 다른 대상에게 상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가해자 혹은 수탈자로 상징된 일부 계층이나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이는 희생제의가 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sup>55)</sup> 또한 면피와 불성실한 애도는 정상적인 치유를 막게 된다. 즉 작품 속에서 악귀 퇴마는 일시적 중단이지, 완벽한 삭제가 아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54) 김중곤,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진보평론』제61호, 메이데이, 2014, 85면.

55) 김현,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문학과지성사, 1999, 227면.

또한 악귀 퇴치와 후일담은 현실의 또 다른 차원을 반영한다. 근래 많은 범죄자들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결손가정, 폭력이 일상인 이웃, 형제 외 다른 이에게 폭력에 시달렸던 과거)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어 사회가 주범이기에 어떤 사람에게 별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제도나 구조의 탓만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작품은 유년 시기 정상적인 가정의 부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이 희생을 감수하면 위험이 줄어들 것이란 메시지도 내포한다. 근래 공포보수주의는 사회 안전망 구축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절제, 통제, 몰입 등 개인화에 치중하고 있다.<sup>56)</sup> 누군가의 희생과 지지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 결론은 일방적인 봉합이기에 문제적이다.

이렇게 최근 귀신판타지는 악귀 퇴치를 빙의자의 자살 시도로 해결하였다. 모든 잘못을 악귀에게 돌리니 사회구조의 문제나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덜어지게 된다. 부재를 채우는 도구로 악귀를 활용한 것이다. 결국 악귀판타지는 문제해결의 사회구조망의 부재를 드러내는데 기여하였다. 결국 판타지는 현실세계의 부조리(불공정, 불평등)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 4. 나가며 : 신자유주의적 통제와 지연된 책임

환상성(판타지)은 어둠을 가시화함으로써 자아를 균열시킨다. 환상은 범주화된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세력을 침식시키기 위해 노력

56) 박형신·정수남, 앞의 책, 118면.

해왔다. 환상물은 현실세계의 곁에, 지배적인 문화의 중심축의 측면에 말 없는 현존으로, 침묵하고 있는 상상적인 타자로 존재한다. 결국 환상은 현실을 도려내고 거기에 부재하는 것, 말해질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었던 것을 드러낸다.<sup>57)</sup> 최근 귀신판타지 드라마는 과거와 달라진 ‘공포’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악의 정점인 ‘악귀’를 전면화한 것은 과거보다 더 부정적인 타자를 노출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악귀는 빙의현상으로 인해 인간과 결탁되므로, 타자와 인간의 관계, 추방 대상에 대한 당대의 시선 등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드러내는데 좋은 소재였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악귀를 독립된 존재 혹은 주체성을 가진 것처럼 구현하였지만, 악귀는 두 형태로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나는 악귀가 인간에 빙의되어 몸 주인처럼 악행을 벌이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악귀에 빙의된 인간의 명령에 다른 인간이 조종되는 방식이다. 악귀의 악행을 대리하는 몸 주인은 악귀를 만나며 변화된다. 부모가 부재했던 이들은 악귀와 결탁하면서 이를 대체할 것들을 얻게 된다. 이들은 납치, 살인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으나 재력가, 경찰이라는 악귀에게 받은 신분과 권한을 이용하여 죄를 은폐한다. 이런 행동은 공동체의 기본질서와 윤리식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정·계도해야할 이 마저 개인의 안위를 위해 범죄를 일으키기에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악귀’는 현실의 경계를 해체하되 이전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타자를 전면으로 노출시키는 방편이었다. 사실 악귀는 허상이고 정체불명의 존재이다. 드라마는 인간이 악귀에게 조종당한 것으로 그려졌지만, 그 악귀는 결국 인간이 자신의 욕구와 안정을 위해 선택한 것이었다. 또한 시각화 차원에서 보자면 인간의 극대화된 욕망을 악귀로 대입하면 누구나 악귀가 될 수 있음을 판타지로 구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악귀의 대리인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범죄자와 그들의 태도이다. 범죄를 행했

57) 케스린 흄, 앞의 책, 232면. 237면.

던 몸의 주인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악귀 탓을 한다. 범죄자들은 분명 상대적 약자를 착취하였지만, 약자의 죽음과 고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판타지는 이미 비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현실 자체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결국 타자와 차단하고 표정까지 감추는 단속사회<sup>58)</sup>의 한 모습을 은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작품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악귀’가 희생을 합리화한 착취, 혐오에 기인한 회피와 화풀이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또한 악귀 퇴치의 경우 기억 삭제와 책임 회피, 혹은 자기 방어와 불성실한 애도의 면모가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했다. 결국 이 방식은 공감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공감은 무감각에 맞서는 힘하면서도 무분별한 일체감, 대리 경험, 대리 희생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sup>59)</sup> 그러므로 악귀 퇴치와 후일담은 이중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악귀는 완전 소멸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끝난다. 제 3의 존재인 악귀가 저지른 행동이기에 그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해결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악귀에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은 악귀퇴치 이후 자살기도를 통해 일종의 책임을 수행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근래 귀신 판타지는 현대인이 직면한 공포의 대상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귀신에 ‘빙’의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빙의된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을 단순히 연민으로 미화한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죄는 악귀의 책임으로 돌리고

58) 엄기호, 『단속사회』, 창비, 2014.

59) 도미니크 라카프라, 김태균 역, 『역사와 기억: 홀로코스트의 그늘에서』, 『치유의 역사학으로: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227면.

반성하지 않는 일면과 사회제도나 불공정한 상황 자체를 개인의 몫으로 남겨 놓는 것 둘 다 문제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떠넘겨서 적당한 포기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치 기법에 적응한 사람만을 사회 안에 살게 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를 사회 밖으로 내던지는 신자유주의의 통치 방식<sup>60)</sup>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악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극대화된 개인주의로 드러난 문제의 근원 회피와 해결의 지연이었다. 이 문제는 과거의 공동체 의식 복귀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후 고민해야 할 것은 타자에 대한 적절한 공감과 실천의 문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극본 정윤정, 연출 김상호·정대운, <아랑사또전>, 2012.8.15~10.18. 20부, MBC.  
극본 양희승·양서윤, 연출 유제원, <오 나의 귀신님>, 2015.7.3~8.22. 16부, tvN.

### 2. 단행본

권석만 『욕망의 자각과 조절,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운주사, 2008.  
김현,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문학과지성사, 1999.  
데이비드 바래시 외, 고빛샘 역, 『화풀이본능』, 명랑한 지성, 2011.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롤프 데젠, 박규호 역, 『악의 종말』, 현문미디어, 2010.  
리처드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묘심화, 『빙의』, 찬섬, 2002.

60) 미셸푸코, 김상운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015, 305면.

- 미셸푸코, 김상운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015.
-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괴물(억압과 위반 사이)』, 여이연, 2008.
-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 엄기호, 『단속사회』, 창비, 2014.
-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행들』, 그린비, 2014.
- 제프리 버튼 러셀, 김영범 역, 『데블』, 르네상스, 2006.
- 찰스 프레드 엘퍼드, 이만우 역,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 황금가지, 2004.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역, 『환상문학서설』, 일월서각, 2013.
- 캐스린 흠,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 테리 이글턴, 오수원 역, 『악』, 이매진, 2015.
- 한병철, 김태환 역,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 3. 논문 및 기타

- 김명자, 「세시풍속을 통해 본 윤달의 의미」, 『고문화』 제45호,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1996.
- 김민영, 「환상서사에 나타난 시각적 정신병리 구현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6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8.
- 김 석, 「에도의 부재와 욕망의 좌절」,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 김아름,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드라마 <아랑사또전>과 영화<아랑>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종곤,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진보평론』 제61호, 메이데이, 2014.
- 김진숙, 「국내 입양 후 파악된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제13권 1호, 한국청소년시설학회, 2015.
- 문선영, 「전설에서 공포로, 한국적 공포물 드라마의 탄생」, 『우리문학연구』 제45집, 우리문화회, 2015.
- 문성원, 『타자와 욕망 :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읽기와 쓰기』, 현암사, 2017.
- 박상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야담수용과정연구」, 『인문학연구』 통권9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박진규, 「대중문화 콘텐츠 속 초자연적 존재 판타지의 정치적 의미—〈오 나의 귀신님〉과 〈싸우자 귀신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10호, 콘텐츠학회, 2017.
- 백소연, 「OCN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5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7.
- 손영은, 「설화 〈아랑의 설원〉과 드라마 〈아랑사또전〉의 서사적 차이와 의미—원환과 해원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1집, 겨레어문학회, 2013.
- 송지은 외 2인, 「분노수준과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09.
- 오세연, 「분노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6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 이소영, 「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법학연구』 제21권4호,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 이정희, 「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위하미,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수업방법연구: 드라마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구비문학연구』 25집, 구비문학학회, 2007.
- 정정훈, 「사회적 배제와 대중들의 공포」, 『문화과학』 통권 78호, 문화과학사, 2014.
- 조현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진은영,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 『시대와 철학』 제21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 천은숙, 「TV드라마 콘텐츠의 게임형 스토리텔링적 접근: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6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7.
- 하은하, 「아랑설화에서 드라마 〈아랑사또전〉에 이르는 신원 대리자의 특징과 그 의미」, 『고전문학교육』 제2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 황인순,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드라마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여성문학회, 2013.
- 홍사현, 「망각으로부터의 기억의 발생—니체의 기억개념연구」, 『철학논집』 제42집, 서강대학교철학연구소,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Television Fantasy Drama  
Expressed as 'The Evil Demons'  
—Focusing on <Arangsaddojeon>(Arang and the Magistrate),  
<Oh! Nawi Gwisinnim>(Oh My Ghostess!)

Jeong Myungmun

In TV shows of late maiden ghosts are often portrayed as protagonists of romantic storylines. Maiden ghosts have been left in this life because they died unfair deaths, but since their past memories have been forgotten they are not depicted in the scary image of a creature burdened by resentment(e.g. distorted bodies). Yet in spite of that, the reason maiden ghosts search for their lost memories make viewers so tense is because of the evil demons, depicted as black shadows or dark images. An evil demon acts through its representative's body, committing all sorts of crimes, which the representatives are able to conceal with their great wealth or policeman/professor statuses. Recently such shows where evil demons and their representatives are the source of crime have been appearing consistently. The shows in question are <Arangsaddojeon>(Arang and the Magistrate), <Oh! Nawi Gwisinnim>(Oh My Ghost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evil demons in each show and analyzes the problems they create, their influence on others, and the conclusion to which eradication of the demon leads. The representatives of evil demons choose evil in order to survive, then become subordinated. Thenceforth they kill those who witness their crimes, yet feel no remorse. The evil demon eventually becomes separated from its representative, but it is only the representative who must pay the consequences of sin. Also, when there is a devoted female figure at the representative's side, there is a

possibility for correction. These thematic trends reflect certain symptom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namely an individual hurting another in order to satisfy his/her desires, then laying the blame on the other person; reducing problems which need improvement at the system level to individual effort; beautifying the acceptance of evil into something sympathetic. Those who are being controlled by the evil demons are proxies of the choices made by human beings. The evil demons and their representatives are distinctive in the show but fundamentally they are one; there is a sense of universality in that anyone can become an evil demon. Ultimately these demons and representatives reflect the state of the current society wherein society's unnatural problems are not solved by the government but left to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Key Words: Alter Ego, Arangsaddojeon(Arang and the Magistrate), A Cover-up of Crime, Desire, Evil Demon, Fantasy TV Drama, Ghost, Neoliberalism, Universality of Evil, *Oh! Nawi Gwisinnim(Oh My Ghostess!)*

접 수 일: 2019년 2월 12일

심사기간: 2019년 2월 16일 - 2월 28일

게재결정: 2019년 3월 22일